



● 뇌파 이용 디지털학습능력진단도구 출시

락싸

생체신호 계측장비 전문 개발업체인 락싸(대표 배병훈 <http://www.laxtha.com>)는 뇌파를 이용해 학습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진단도구를 개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디지털 학습능력 진단도구는 기존 사용자가 정해진 시간에 문제지를 풀어 점수를 산정하는 결과론적인 평가방식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뇌에서 발생하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파형을 실시간으로 분석, 개인별 학습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돼 있다.

사용자의 머리에 뇌파 전극을 부착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되는 문제를 키보드로 풀기만 하면 실시간 뇌파분석과 함께 인지강도, 인지속도, 집중도, 뇌 부하도, 정답률과 오답률 등 평가결과가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된다.

이외에 락싸는 뇌파를 이용한 두뇌개발 바이오퍼드백 도구도 내놓았다. 이 도구는 사용자의 집중력 훈련이나 우뇌개발 등 부족한 점을 바이오퍼드백 훈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

배병훈 사장은 “약 10%에 달하는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차후 학습능력 뇌파의 DB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인에 맞는 디지털 IQ 측정 검사장비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계 최고속 모바일 CPU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포스트PC로 대변되는 PDA·스

마트폰용 세계 초고속 CPU를 개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인텔을 속도전에서 따돌려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PDA·스마트폰 등 휴대정보기에 탑재하는 533MHz급 모바일 CPU(모델명 S3C2440)를 업계 처음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은 신제품을 HP와 대만 마이텍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PDA시장에 후발 진입한 대형 PC 업체들과도 수주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성능 PDA용 CPU시장은 현재 인텔이 400MHz급 제품으로 멀티미디어 기능을 내세워 선점하고 있고 최근 520MHz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토로라도 400MHz대 제품을 개발했으나 아직 시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고속·고성능 제품을 먼저 개발, 포스트PC용 CPU시장에서 선두업체들을 제압함에 따라 향후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특히 고성능 PDA시장을 겨냥해 1GHz급 제품을 이르면 연말께 내놓는 한편 무선통신 기능을 부가한 3세대 휴대폰용 시스템온칩(SoC)도 내년 중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진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200여만대로 예상되는 PDA시장에서 15~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2~3년 내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내 PDA업체의 한 임원은 “삼성의 제품은 휴대정보기기시장에서 필수적인 전력소모량과 데이터 전송속도 기술에서 선두업체들을 앞선다”며 “관건은 다양한 후속제품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말



했다.

모바일 영상감시 프로그램 출시

성진씨앤씨

성진씨앤씨(대표 임병진 [http:// www. sjnc.com](http://www.sjnc.com))는 자사가 개발한 디지털영상감시장치(DVR)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연동, 무선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DiSS MobileAgent'를 출시했다.

무선 랜이 내장된 PDA에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영상을 감시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녹화된 영상의 재생은 물론 카메라 감시방향도 원격지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성진씨앤씨는 "PC나 모니터 없이도 수십개의 카메라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찰중인 아파트 경비원이나 각종 매장을 원거리에서 관리하는 매장주인 등에게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성진씨앤씨는 우선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 제품을 자사 DVR 구매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독립된 패키지 상품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서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임병진 사장은 "모바일 감시 기능이야말로 기존 아날로그 CCTV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진전된 기술"이라며 "최근 주차장 납치사건 및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모바일 감시시스템이 출시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범지역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파 차단 헤어드라이기 출시

유닉스전자

유닉스전자(대표 이충구 <http://www.unix-elec.co.kr>)는 최근 인체 유해성 유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전자파(EMF:Electric Magnetic Field)를 95% 이상 차단하는 헤어드라이어 '제로파'를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유닉스전자는 "전자파의 유해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라이어의 경우 머리에 직접 바람을 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민감해지게 마련'이라며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차단하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유닉스전자는 신제품의 경우 인체와 5cm 간격을 두고 사용할 때 2mG 이하의 전자파만을 발생시켜 전자파 차단율이 약 95%에 이르고 더붙였다. 외부에 전자파 차단 표시 램프가 장착돼 차단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유닉스전자는 이 제품을 현재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4만 9000원이다.

차량용 쌍방향 라디오 개발

현대오토넷

현대오토넷(대표 강석진 <http://www.hyundaiautonet.com>)은 현재 개발 중인 '양방향 라디오'를 올 4분기 상용화해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현대오토넷이 개발 중인 차량용 양방향 라



디오는 모토로라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에 양방향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디지털 오디오는 기존의 아날로그 오디오와는 달리 모든 신호를 디지털 칩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방향 기능을 위해 버튼과 소프트웨어만 추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현대오토넷은 미국의 주요 양방향 라디오방송 서비스 공급업자인 스트라토스 오디오(StratosAudio)와 협력하고 있다.

현대오토넷은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를 오는 10월 초 전미라디오방송장비쇼(The NAB Radio Show: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Radio Show)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며 내년 1월 세계 최대 전자쇼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의 특별 초청 제품으로도 출품한다.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가 상용화되면 운전자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라디오 창에 문자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 구매예약할 수 있다.

현대오토넷은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가 미국과 유럽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 모토로라와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이후 유럽 및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스를 위해 소니와 손을 잡았다. 이번 협력은 KT가 기존 전략적 제휴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X박스'를 제치고 경쟁사 소니를 선택한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KT수도권강남본부(본부장 정재진)는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와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PS2 온라인게임 서비스 공동 마케팅 협정을 맺는다.

KT와 소니는 지난 3일 공식 출시한 PS2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공동 판매하기로 했다. 양사는 네스팟과 PS2 타이틀을 기본으로 콘솔·네트워크어댑터·메모리카드·타이틀 등을 묶어 두가지 패키지 형태로 시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콘솔로 게임을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무선LAN 서비스인 네스팟을 통해서도 온라인게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두 회사는 8월 15일부터 이같은 제휴상품을 시판키로 하고, 초기에는 무료체험권 및 할인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KT 관계자는 "이번 마케팅 제휴는 오는 10월까지이고, MS가 온라인게임 버전을 개발하는 대로 X박스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도 소니와의 제휴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소니와 전략적 제휴

KT

KT가 초고속인터넷 기반의 온라인게임 서

● 무선 홈시어터 유럽에서 인기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kr>)는 자사 무선 홈시어터가 이탈리아에서 전문 잡지에 소개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평



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시장에 출시한 무선 홈시어터(모델명 DA-SW6100)를 이탈리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AV전문 잡지인 'AF Digitale'에 테스트를 의뢰한 결과 디자인·기능·화질·음질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의 평점을 받았고, 관련 내용이 동 잡지 6월호에 게재됐다.

LG전자의 무선 홈시어터는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다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연결선을 없앤 것으로 저출력 스피커·헤드폰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무선기술을 성공적으로 AV제품에 응용한 첫 제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이탈리아 시장에 출시한 무선 홈시어터의 판매가격이 1000유로를 넘는 고급제품임을 감안,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경쟁사들과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AV마케팅팀장 김기완 상무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홈시어터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능, 인터리어를 강조한 제품개발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홈시어터 시장에서 LG브랜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유럽 홈시어터 시장은 약 400만대 규모로 예상되며 LG전자는 2005년 유럽 홈시어터 시장 '톱3'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세계 최초 슈퍼멀티DVD라이터 출시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 <http://www.lge.com>)는

세계 최초로 DVD-RAM·-RW·+RW 세 가지 DVD 포맷을 전부 지원하는 슈퍼멀티DVD 라이터(모델명 GSA-4040B)를 출시한다.

슈퍼멀티DVD 라이터는 CD 7장 분량인 4.7Gb의 대용량 데이터를 DVD 미디어 단 장에 기록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DVD라이터는 기록방식에 따라 DVD-RAM과 DVD-RW·DVD+RW 등 세 가지 규격이 혼재돼 있고 상호호환이 불가능해 시장 확산의 걸림돌이 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LG전자가 내놓은 슈퍼멀티DVD 라이터는 모든 DVD 규격에 호환된다. 동영상과 음악 등의 미디어 기록에 적합한 DVD플러스(+R/RW와 AV기기와 호환성이 좋은 DVD마이너스(-)R/RW는 물론 대용량 데이터의 기록 및 편집에 탁월한 DVD-RAM 규격을 모두 수용해 PC의 멀티미디어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LG전자는 슈퍼멀티DVD 라이터의 안정적인 기록을 위해 버퍼언더런 방지기술을 적용했으며, 전면부 디자인을 새롭게 해 다른 제품과 차별성을 두었다.

LG전자 디지털스토리지(DS)사업부 박경수 부사장은 "LG전자는 일본 업체가 석권하고 있던 광스토리지사업에 뛰어들어 초스피드라 할 정도의 선출시 정책과 제품기술력을 바탕으로 98년 이래 6년째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생산 혁신으로 세계 1등 사업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해 2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16%의 점유율을 기록한 라이트온을 여유있게 제치고 세계 광스토리지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